

#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본부

---

1. 공덕역 인근 경의선 부지(이하 경의선공유지)는 경의선의 지하화 과정에서 지상 구간이 유희화 되었음에도 대기업의 상업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인해 젠트리피케이션과 공유지의 공공성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개발 논리로 인해 공유지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유와 공공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공간에 대한 기획과 상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 심지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공유지를 비롯한 철도부지를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유용하고 있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주체인 이랜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경의선공유지를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방관한 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맞서 공유지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과 시민참여적 모델의 실천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각 시민단체 및 연구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경의선공유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넘어 철도부지의 공유화에 대한 사회적인 연대체로 오늘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의선범대위)의 출범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5. 경의선범대위는 다음 사항을 요구사항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합니다.

### <요구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대기업을 앞세운 사익추구 투기적 개발을 중단하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공유지를 수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마포구청 뒤에 숨어있지 말고, 경의선공유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면  
에 나서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경의선공유지를 방치하고 있는 이랜드와 계약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참여하에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보다 공익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2019년 5월 8일

###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에너지정책연구소, 진보평론,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본부

◎ 사회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진행 순서

1. 경의선범대위 발족 배경 및 취지 : 박배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2. 경의선범대위 향후 활동 계획 : 이승원(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집)

3. 연대 발언

- 김상철(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 신동호(철도노조 대협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박정직, 강수영

## [부록] 경의선공유지+연구자의집 관련 진행 경과

- 2006.9.20.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중 공덕~가좌구간 철도 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10.12.20.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의선 지상부지 활용 협약 체결
-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의선 지상부지 무상사용(공원조성) 협조
  - 서울시 : 경의선 공덕, 홍대입구역 역세권 개발계획 협조
- 2013.01 사회적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의선공유지 활동에 대한 논의 진행
- 2013.08 시민시장 늘장 활동 시작 (늘장 운영과 관련한 협의주체의 역할을 마포구 일자리경제과가 맡음)
- 2015.11 마포구 측에서 늘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 2016.2.19. 공유지의 공공적 사용과 시민참여적 대안제시를 위해 40여개 단체를 중심으로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발족 및 활동시작
- 2018.5.3. 대안적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경의선공유지추진위> 발족
- 2019.1.26.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집> 창립총회 및 설립계획 발표
- 2019.4.13. <연구자의집> 설립을 위한 바닥 프레임 설치
- 2019.4.18.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마포구 측에서 <연구자의집> 터에 기습적으로 펜스 설치
- 2019.4.23. 한국철도시설공단 규탄 기자회견.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거부
- 2019.4.26. <연구자의집> 집들이 상량식
- 2019.5.18.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사익추구 투기적 개발을 중단하라”

오늘 우리들은 모든 이들의 공유 자원인 철도부지를 기관의 이익을 위해 투기적으로 개발하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행태를 비판하고, 철도부지 활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범시민적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철도부지는 국유지로서 원칙상 모든 국민들이 주인인 땅이다. 하지만, 단지 행정적 관리 주체일 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를 마치 자신의 독점적 소유물인 양 자기 기관의 이익을 위해 수익추구적인 개발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경의선의 지하화로 인해 비워진 지상구간의 활용에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인 사익추구적 행태는 그 도를 넘어 탐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2005년 경의선 일부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그 지상구간에 대한 공원화와 대규모 상업적 재개발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인근 지역의 극심한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경의선 부지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이 쫓겨남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애초에 경의선의 모든 지상 구간에 대한 공원화가 계획되었으나, 조금이라도 더 기관의 수익을 올리고 싶어 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에 경도된 오세훈 치하의 서울시가 결탁하여 경의선 지상 구간 중 일부 역세권에 상업적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경의선을 동서로 관통하여 흘러갈 숲길과 바람길은 몇몇 대기업에 의해 건설된 고층 빌딩으로 가로막히게 되었고, 경의선 일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는 공덕역 1번 출구 옆의 경의선 부지(이하 경의선공유지) 마저도 수익추구적인 투기적 개발로 내몰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땅의 영리추구적 개발을 위해 (주)이랜드월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인 이랜드공덕(주)를 설립했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7년이 다 되도록 경의선공유지는 지금까지 뚜렷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공터로 방치된 경의선공유지에는 다양한 시민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몇 년 간 포용과 공유의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들은 이 공터를 시민장터, 철거민들의 임시거처, 강연장, 어린이들의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한 행정적 관리권한을 가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부지를 상업적으로 개발해 이윤을 얻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자치적 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주는커녕, 국유지에 대한 무단 점거를 근거로 지속적인 방해로 일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덕역 옆 경의선 부지를 대기업에 의한 고밀도 상업적 재개발로 내모는 것이 공익적인가, 아니면 빈 철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물려든 시민 주체들과 협력하고 소통하여 이 땅을 시민들의 자치적 공유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공익적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 경의선 부지를 활용하려 한다면, 계약만 체결하고 장기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않아 국유지를 빈 공터로 방치한 이랜드공덕을 앞세운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자발적 의지로 스스로 자원과 시간을 쏟아 활동하는 시민주체들과 협력해 경의선공유지의 대안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강력하게 경고한다.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이랜드공덕(주)은 지난 7년 동안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그 땅을 공터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경의선공유지는 이랜드공덕으로 하여금 개발 행위에 적극 나서게 할 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땅이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랜드공덕(주)을 통한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공유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그 땅에 대한 종상향과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꾀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기 기관의 이익 때문에 마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망치고 서울이란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이러한 꼼수를 추진하고 있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쇄되는 것이 맞다. 더불어 경의선공유지의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는 시민주체들과 적극 협력하고 연대하여 경의선공유지의 보다 공유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만약 경의선공유지의 개발수익성을 높이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탐욕적 시도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그 실상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대기업을 앞세운 사익추구 투기적 개발을 중단하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공유지를 수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마포구청 뒤에 숨어있지 말고, 경의선공유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면  
에 나서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경의선공유지를 방치하고 있는 이랜드와 계약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참여하에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보다 공익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2019년 5월 8일

###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에너지정책연구소, 진보평론,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